



주간통일정세 2009-04(2009.01.19~2009.01.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0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설 맞아 합창공연 관람(1/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을 맞아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통신은 남성합창 '김정일 장군의 노래', '동지애의 노래', 여성중창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등의 공연에 김 위원장이 만족을 표시하면서 "합창단의 예술인들이 혁명적인 예술활동을 광범하게 벌여 새해의 보람찬 투쟁에서도 선군시대 나팔수로서 위용을 떨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기룡 중앙통신사 사장, 차승수 조선중앙방송위원장, 현철해·김명국·리명수 북한군 대장 등이 수행

● 김정남, 北 후계구도 관심없다(1/24,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8)은 24일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것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께서만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답변
- 이어 "북한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으며,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이런 민감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
- 후계구도와 관련, "결정되기 전에 가정하고 상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동생인 김정운이 후계자가 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
- 두꺼운 점퍼에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한 김정남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담화(말)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 같은 분의 건강에 대해서는 함구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함.
- 베이징에 온 목적에 대해 그는 "개인적인 일로 놀러 왔다"면서 "며칠 동안 베이징에 머물다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라고 언급, 또



“김정남이 맞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기자들에게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다’며 “나만 취재하지 말고 그에게도 물어보라”고 답변

- 김정남은 이어 베이징의 쿤룬호텔에 짐을 풀뒤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후계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는 질문에 “본인은 관심이 전혀 없다”면서 “부친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으며 동생인 김정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낀. “누가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느냐”는 물음에도 “모든 것은 아마 부친께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만 밝힘. 또 동생이 후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것은 동생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답변을 회피
- 김정남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에서의 답변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신문에 보도한대로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

● 김정일, 한반도정세 긴장 원치 않아(1/23, 신화통신;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3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언급
- 김 위원장은 23일 평양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들고 방중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6자회담) 각 당사국들과 평화적으로 함께 지내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 함께 협조와 조화를 이뤄 6자 회담을 부단히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
- 평양 백화원 국민관에서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왕 부장은 후 주석이 보내온 축하 인사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음. 후 주석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도 후 주석의 방중 요청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통신은 보도
-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왕 부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도 함께한 사실을 보도, 이번 면담 장면은 북한 매체뿐만 아니라 신화통신이 직접 찍은 사진 10장도 함께 공개돼 김 위원장이 국가 통치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사실상 확인됨.

나. 정치 관련

● 南 흑한기 훈련 비난(1/26,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6일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개인 논



평에서 남한 군대가 최근 흑한기 훈련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전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전주곡”이라고 비난

- 민주조선은 지난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남한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을 짓밟개버릴 것”이라고 말했음을 상기시키며 남한군이 “이러한 때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흑한기 훈련을 벌이는 것으로 우리 혁명무력의 경고에 공공연히 엇서(어긋나게) 나서고 있다”고 주장

● 美 NGO ‘민주화 십자군’ 비난(1/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을 꿰뚫어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환상적으로 대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제국주의, 이른바 ‘물질적 번영’을 뽑내는 이 지배주의 세력을 우상화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주장
- 신문은 “그들의 ‘인권옹호’요, ‘민주주의 보장’이요 하는 광고는 침략적인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위장간판”이고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 개개인의 운명을 망치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미 비정부기구(NGO)들의 “반동성”을 비판하고 이라크 후세인 정부와 구 유고슬라비아의 붕괴를 예로 들.

● 玄통일 내정은 대북 대립 선언(1/25,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5일 ‘동족대결 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범죄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부 장관에 ‘비핵·개방·3000’ 구상의 입안자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과 관련, “우리와 계속 엇서(대립)나 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난
- 신문은 특히 이명박 정부가 “올해에 지난해보다 동족 대결 책동을 더욱 강화하여 북남관계를 대결과 파국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밀어넣으려 하고 있다”며 현 교수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조건에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파국적 사태가 벌어질 지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

● 北, 南정부 對이스라엘 결의안 기권 비난(1/2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우리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 군사공격을 규탄하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보편적 인권이란 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기만적인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

● 北, 전투력·충성심 약화 美보고서에 발끈(1/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헛된 꿈은 꾸지도 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NIC 보고서 내용은 “악의에 찬 비방증상”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반발, 1990년대 중반 아사사태



이래 지속된 영양실조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북한군이 최악의 징병난을 겪을 것이며 북한군의 충성심도 약화될 수 있다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보고서에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밝힌

- 통신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결핵, 성홍열, 홍역 등이 심각한 의료문제가 되고 있다는 NIC 보고서의 지적을 예시하고 “우리 인민들의 건강상태를 왜곡했다”며 “유치한 거짓말”,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등으로 일축

● 美보고서, 북한은 핵보유국 소개(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는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 국방부 ‘핵무기관리점검특별팀’이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한 사실을 비중있게 보도
- 통신은 “미 국방부 ‘핵무기관리검토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조선(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표기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며 “보고서는 조선이 여러 개의 핵무기뿐 아니라 그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체계도 함께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고 보도하고 또 외신들이 “그 보고서가 조선을 비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된다고 평가하였다”고 소개

● 北, 10대에 혁명길 나선 김일성 선전(1/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고 김일성 주석이 10대 초반에 이미 항일투쟁을 시작했다고 북한이 선전하는 이른바 ‘광복의 천리길’ 기념일인 22일 ‘10대에 걸으신 혁명의 천리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를 거듭 선전

● 北, 가자사태 보면 자위력 길러야(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히스테리적 광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과 미군의 이라크 침공을 예로 들어 약자는 자주권과 정의를 지킬 수 없다며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
- 신문은 또 “미국이 표방하는 대화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며 그들이 진짜 노리는 것은 무력으로 우리를 압살하는 것”이라며 “대화의 간판을 내걸고 우리와 협상을 벌이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대화 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썩워 전쟁을 도발하지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라고 주장

● 北, 남북, 6·15이전보다 더한 대결상태(1/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겨레의 통일염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인해 현재 남



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사태”에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조정기”라고 말한 것을 부정하고 “전면차단의 위기”에 처해 “6·15이전보다 더한 최악의 대결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와의 전면 대결”이 “어떤 파국적 후과를 불러오겠는가”를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총참모부 성명, 빈말 아니다(1/19,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대남 “전면 대결태세”를 선언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과 관련, “우리는 빈말을 모른다”며 자신들의 경고를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우리의 대답은 무자비한 징벌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라며 그 책임을 남한 정부에 전가하고 북한군 총참모부의 성명은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자위적 조치야말로 시기적절한 것이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마땅한 대응”이라고 덧붙임.

다. 경제 관련

● **北공장들, 새학년도 학용품 생산 분주(1/27, 조선신보)**

- 북한의 각 학용품 공장들이 오는 4월1일 신학년도 개시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용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7일 소개
-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학생용 가방을 생산하는 평천가방공장의 박봉철 지배인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학용품 생산은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후대들에게 훌륭한 학습 조건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국가적인 사업의 하나”라며 “현재 많은 가방들이 생산됐고 2월 말경에는 생산이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
- 평천가방공장에서 만들어진 가방에는 필통, 자, 책받침, 크레파스, 지우개, 학습장 등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학용품이 채워져 평양시내의 소학교 신입생들에게 공급, 이에 따라 가방 이외에 다른 학용품을 생산하는 평양수지학용일용품공장, 평양학습장공장, 평양학용품공장 등에서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북한은 1996년부터 새 학년도 개학일을 9월 1일에서 4월 1일로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3월을 ‘학교지원 월간’으로 정해 교재 준비와 교과과정 점검, 교과서와 학용품 공급 등 개학 준비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음.

● **UNDP 대북한 사업 재개 최종 승인(1/22, 연합)**

-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사업이 오는 3월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 UNDP 집행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올해 제1차 정례회의에서 자금 전용 의혹 등으로 2007년 이후 2년 가까이 중단됐던 북한



사업의 재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

- 집행이사회는 결정문에서 그간 북한 측과의 협의를 통해 대북 사업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사업에 대한 독립적 회계감사, 경화지급 방식 변경, 북한 현지 직원 선발 절차 개선, 사업 내용 조정 등 4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 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됐다고 밝힘.
- 주유엔대표부 관계자는 “UNDP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들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북한측 대표는 이날 결정문 채택후 사업 재개를 지지해준 회원국들에게 사의를 표하면서 UNDP의 북한 복귀를 환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짐.

● 식량난 ‘자력갱생 해결’ 강조(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식량위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식량 문제의 근본해결 방도는 자체의 노력, 즉 자력갱생에 있다”고 강조
- 신문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식량 재고량이 모자라 식량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토지의 사막화, 태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 등 “농업생산에 불리한 자연기후 현상”이 식량위기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

● 北,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 강조(1/2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21일 “강선의 본때로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공정의 기술개선”과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신문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야 한다”며 “오늘의 대고조는 기술혁명의 대고조, 현대화의 대고조”라고 주장, 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과학기술 중시 노선”을 지적, “모든 문제를 새로운 안목과 높이에서 보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과학기술을 나라의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는 확고한 관점,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강성대국 건설에 참담하게 이바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꾼(간부)이건 노동자이건 누구나 현대 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강조
- 이어 신문은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상교양 사업”을 주문하고 “대중의 양양된 열의와 대고조 시대에 벽찬 분위기에 맞게 선전선동 사업을 패기있게 벌여 온 나라에 1950년대와 같은 혁명적 기상과 낭만, 비약의 열풍이 끓어번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



● 北, 3월 버섯생산 기술강습회 개최(1/12, 노동신문)

-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가 버섯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전국 버섯생산부문 기술 강습’ 을 오는 3월 24~26일 평양에서 연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 이후 주민들의 부식물 해결을 위해 각 구역과 군 단위로 버섯공장을 세우고 느타리버섯, 검정버섯(목이버섯), 벗짚버섯(들버섯과의 송이), 참나무버섯(표고버섯) 등을 생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며, 2007년에는 조선버섯기술협회를 창립

● 북한 시도별 경제 과제 제시(1/20, 연합)

-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신년사) 발표 이후 지난 5일 10만여 명이 참가한 평양시 군중대회와 이어 열린 시도 단위 군중대회에선 도별 특성과 주력산업에 따라 중점 과제가 달리 제시되었음.
- 20일 북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평양시는 강철분야 지원과 전력공업, 석탄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혁신을 강조, 또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 주민 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돼지공장 개건공사와 함께 주택건설의 적극 추진을 과제로 제시했음.
- 평안남도는 2008년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 운동을 시작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주체철’ 증산과 새로 건설한 ‘초고전력 전기로’의 총가동, 전 도민의 강철분야 지원, 식량증산을 위한 유기질 비료 생산 등을 촉구
- 평안북도는 금속공업 부문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수풍, 태천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소에서 전력증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의주화학제품공장 등의 생산 혁신, 그리고 선진 영농기술의 도입을 주문
- 황해남도는 은률광산, 재령광산 등의 철광석 증산과 전 군중적 파철수집 외에 곡창지대로서 다수확 작물과 품종의 도입, 이모작 활성화를 통한 농업생산 목표 달성을 중점 과제로 내세움.
- 황해북도도 황해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 증대, 예성강청년1호발전소의 전력 증산, 2.8마동세멘트공장, 사리원닭공장, 사리원돼지공장의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농업부문에서 다수확 품종 도입 및 물길(수로)공사의 조기완공, 토지정리를 통한 미루벌 경작지화 등을 내세움, 또 황해북도는 살림집 건설과 도 예술극장, 전지도서관 건립 등도 과제로 제시
- 함경남도는 금야강발전소, 금진강구창발전소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단천지구 광산의 채굴능력 향상 및 수동지구 탄광의 생산조건을 개선할 것과 2.8비날론연합기업소 2단계 개건공사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 또 흥남제약공장 개건공사를 조기 완공하고 광포오리공장, 함주돼지공장에서 생산을 높이며 함흥시 살림집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



- 함경북도에선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서 ‘북한식 철생산 방법’을 완성하고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채굴, 채광 및 운광설비 현대화를 통한 철정광의 생산을 증대하는 것과 함께 서두수발전소, 청진화력발전소를 추가동하며 건설중인 어랑천발전소 2단계 공사를 조기 완공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제시
- 강원도는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의 적극 추진, 문천강철공장 생산공정의 강화, 원산신발공장, 원산편직공장 등의 현대화와 문천담공장의 개건 확장, 농촌경리 다각화를 통한 식량문제 해결을 강조
- 북부 고산지대인 량강도는 2007년 5월 준공한 삼수발전소 운영 관리의 강화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중소형발전소 건설의 적극 추진, ‘감자의 고향’으로서 감자농사에서 획기적 전환을, 자강도는 금속공업부문 현대화와 강계청년발전소와 장자강발전소 등의 전력 증산 및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통나무 생산 확대를 각각 핵심 과제로 제시
- 자강도는 또 닭공장, 돼지공장, 오리공장의 생산 정상화와 고치생산의 확대를 강조했으며 특히 지난해 말 새로 건립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시찰한 강계시의 전자업무연구소에서 도내 기관 등의 정보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

● 北수산당국, 양어생산 2배 증대 목표(1/20, 조선신보)

- 북한 수산 당국이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올해 “양어 생산량 2배” 목표를 내세움. 조선신보는 20일 북한 수산성의 한영일(45) 부국장이 “양어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신년 공동사설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주력”한다는 “양어 중시” 정책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
- 북한은 이를 위해 이미 2008년 9월 양어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상설 조직으로 ‘조선양어협회’를 발족시켰음. 이 협회는 국가과학원 양어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원산과 남포의 수산대학 교수와 연구원, 평양시양어관리국을 비롯한 각 도의 양어국,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양어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해외동포도 가입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

● 北, 위화도 자유무역지구 지정 추진(1/20,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인 압록강에 있는 섬인 위화도를 중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복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중국과의 국경무역 강화를 통해 부족한 식료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북한이 이런 계획을 마련한 목적 중의 하나로 추정되며 아울러 북한의 북중무역 강화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융화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북한 신의주에 속해 있는 위화도는 면적은 약 15.5km²로 소식통에 따르면 섬 안에는 교역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중국인은 비자가 없이도 이곳을 방문해 일용품이나 식료품 등을 판매하거나 매입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북한측의 구상, 중국 국경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를 면제해 무역 확대를 달성한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헤이허(黑河) 자유무역지대가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현재 단둥(丹東)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중조(中朝) 우의교(友誼橋)’가 노후화돼서 다리 인근에 새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북한측은 최근 중국에 새 다리를 위화도가 있는 압록강 상류측에 건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위화도는 지난 2002년 대외개방을 하려다 실패한 신의주경제특구 내에 있으며 이번 계획도 당시의 구상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그러나 신문은 북중 관계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 “이번 자유무역지구 지정 대상은 위화도뿐이고 개방 대상국도 중국에 한정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무역 강화가 주요 목적이며 2002년에 이어 또다시 대대적인 대외 개방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언

● 北, 휴대폰 일반인·지방 확대 허용(1/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2008년말 평양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 주민과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 북한을 왕래하는 중국인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개통 초기 당과 내각의 간부들에게 판매되던 휴대전화가 이제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판매되고 있다”며 일반 주민도 가입비와 기기를 포함해 350달러를 내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
- 북한 당국은 처음엔 간부들에게 우대 가격인 200달러에 휴대전화를 공급했지만 가입자가 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인은 “일반 주민은 가까운 체신국에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민증을 제출하고 돈을 내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고 설명
- RFA는 북한의 ‘함경북도 지방과 연락하고 있는 탈북자’의 말을 인용, 북한 당국이 최근엔 군부대들과 지방에도 휴대전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 이 탈북자는 “평성시와 남포시 등 지방 도시에는 필요한 통신장비들이 2008년 말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중앙의 지시가 있으면 당장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북한 사람들이 말한다고 전언, 그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북한 당국은 비밀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통신 기지국에는 도청 전문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국제상품전 일정 확정(1/15, 내나라)

- 북한이 올해도 봄과 가을 두 차례 평양에서 국제상품전람회를 연다고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가 15일 구체적인 일정을 소



개, 봄철 전람회는 5월11일부터 14일까지, 가을철 전람회는 9월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리며 봄철 참가 희망자는 3월31일까지, 가을철 희망자는 8월10일까지 참가 희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소개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설맞이모임서 ‘김정일 건강’ 기원(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학생들의 설맞이 모임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하는 서장(序章)을 별도로 마련, 공연함으로써 눈길을 끄.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올해 학생 소년들의 설맞이 모임 ‘설 눈아 내려라’가 이날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됐다고 전하면서 “설맞이 모임은 서장 ‘아버지 장군님 건강하세요’로 시작되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이 불참한 이날 모임에는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과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했으며, 북한 주재 각국의 외교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됐음.
- 학생 소년들의 설맞이 모임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을 축원하는 장이 이번처럼 별도로 마련돼 공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北, 설맞아 다양한 음식 제공(1/2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설 명절을 맞아 평양시의 급양봉사망(식당)들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마련,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26일 보도, 조선중앙TV에 따르면, 평양시 안의 여러 식당에서는 떡국과 지짐(부침개), 산적, 식혜를 비롯해 평양의 4대 음식인 평양냉면, 평양온반, 대동강송어국, 녹두지짐을 준비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평양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대동강맥주집도 시원한 맥주를 준비하고 있다고 방송은 보도

● 南출신 北 강신익씨의 사모곡 보도(1/26, 평양방송)

- 지난 1985년 북측 이산가족 방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해 어머니와 상봉했던 강신익(74)씨가 26일 설을 맞아 모친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 강씨는 이날 평양방송과 인터뷰에서 85년 어머니와의 상봉당시를 회상한 뒤 “한 지맥으로 잇닿아 있는, 얼마 멀지도 않은 남녘 땅에 계시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설날에조차 인사를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 가슴은 지금 막 찢어지는 것 같다”고 언급

● 월북학자 리극로 장남, 北한의학 대가(1/2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월북 국어학자이자 북한 초대 무임소상을 지낸 리극로의 장남인 리역세(77) 조선고려약(한약)기술센터 실장을 북한 한의학계의 대가라고 소개
- 통일신보에 따르면 리 실장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의학



대학 강좌장 등을 역임하면서 “뇌압을 낮추게 하는 약 성분을 상온에서 합성하는 방법”과 “효능높은 고려녹태고”를 개발했고 “의학교육분야에서 물리교질 화학과 합성제약과목”을 처음 개척하는 등 지난 50여년간 한의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거뒀고 약학박사와 화학박사까지 2개의 박사학위를 획득

- 리 실장은 현재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그의 동생 대세(71)씨는 공학박사에 경제학 학사(석사급)로 국가과학원 중앙광업연구소 소장을 역임 중임.

* 경상남도 의령군 출신인 리극로(1893.8~1978.9)씨는 1948년 4월 평양시 열린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참석차 월북한 이후 초대 무임소상 외에도 제2대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언어학 원사(북한 최고 학위)로 ‘조선어문법’, ‘조선어사전’ 등을 편찬하는 등 북한 언어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

● 北서커스 공중돌기, 모나코대회서 금상 수상(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교예(서커스) 배우들이 모나코에서 열린 제33회 몬테카를로국제교예 축전에서 ‘3단공중전화비행’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 서커스단은 또 ‘철봉과 유동그네날기’가 은상을 수상

* 북한은 1천640석 규모의 인민군 교예극장에 이어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에 3천500석 규모의 전용극장인 평양교예극장을 건설하는 동시에 교예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양교예학교를 설립·운영

● 사리원 민속촌에 침성대 모형도 전시(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사리원 민속거리에 민속오락장, 조선옷점(한복점), 고려약방(한약방), 민속음식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소개

- 역사자료 전시마당에는 고조선 시대의 고인돌 모형과 침성대 모형 등 한반도의 대표적인 역사유적 모형과 함께 반만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소개하는 직관(그림·도표) 자료들이 전시

* 사리원 민속거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리원시가 2004년부터 시내 명승지인 경암산 기슭의 80여정보(약 24만여평)의 부지에 건설한 민속촌으로 2008년 말 완공됐으며, 김 위원장이 12월 중순 시찰하였음.

● UNICEF, 北전역 백신 냉장보관설비 교체(1/22, 미국의소리방송)

-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부터 북한 전역의 백신 냉장보관설비를 대대적으로 교체할 계획, UNICEF 평양사무소의 캄룰 이슬람 보건영양사업팀장은 22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올해 평양사무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백신 냉장보관설비 교체와 관련한 기술자 교육”이라고 언급

- 그는 “2007년 당시 북한의 예방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홍역이 발생했다”며 “UNICEF는 자체 조사결과 북한 내 예방백신 냉장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사업배경을 설명

● **北당국, 북한내 ‘지하교회’ 처음 인정(1/21,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 당국이 최근 처음으로 북한내 지하교회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1일 보도, 방송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2008년 12월18일 ‘간첩’을 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불순 적대분자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려던 비밀지하교회 결성 음모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

● **北, 작년 최우수 씨름·바둑 선수 선정(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는 2008년 최우수 씨름 선수로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의 리철송(남자), 강대권(남자) 선수를 선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최우수 바둑 선수로는 조선바둑협회의 조대원(남자) 선수가 뽑혔고, 최우수 감독에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의 씨름 감독인 리경남(남자)과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의 바둑 감독인 리봉일(남자)이 각각 선정
- * 북한에선 태권도 외에 씨름, 바둑 등도 ‘민족체육’으로 분류해 태권도위원회에서 총괄

● **北, 2009년에도 ‘평양 리모델링’ 계속(1/21, 조선신보)**

- 북한이 ‘평양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올해 기존 공원을 일신하고 새 공원을 여러 곳 만들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21일 보도, 신문은 “올해 수도(평양)의 곳곳에 새 공원이 꾸러지게” 되고 “또한 시안의 곳곳에 3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소개
-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주택 건설이 한창인 만수대거리에 공원을 만들고 대성구역 안악동에 ‘민속공원’을, 락랑구역에 있는 북송 비전향장기수 리인모의 반신상 주변에 현대적인 공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北, 반만년사를 ‘지도첩’으로 제작(1/20,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고대에서 근대까지 한국사를 지도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조선역사지도첩’을 발간, 조선신보는 20일 “역사지도첩은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반만년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는 100여도의 역사지도로 구성됐다”고 소개



- **北미술창작기관, 미술작품 100여점 창작(1/19, 조선중앙통신)**
 - 만수대창작사와 중앙미술창작사를 비롯한 북한 미술창작기관의 미술가들이 새해 들어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와 원산청년발전소 등을 찾아가 공장과 근로자의 모습을 담은 100여 점의 미술작품을 새로 창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 **北, 겨울철 ‘모범농민’ 대상 휴양 실시(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새해 첫 겨울철 ‘농민휴양’이 시작돼 각 지역 휴양소에서 ‘모범’으로 선발된 농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
 - 통신은 평양시의 고방산, 평안북도의 묘향산, 함경북도의 온포, 함경남도의 송단, 정평, 황해남도의 석담구곡 등에 자리잡은 휴양소들이 일제히 문을 열었다며 “휴양생들은 휴양기간에 혁명사적지와 명승지 참관, 다채로운 예술활동, 체육경기, 민속놀이 등으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
 - * 북한에서는 겨울철 농한기인 12~2월 ‘모범’ 농민을 대상으로 정기휴양인 ‘농민휴양’ 제도를 운영, 북한의 휴양소는 4월부터 10월 까지 ‘모범’ 노동자·사무원과 그 가족들이 이용하고 한달동안 정비한 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모범 농민과 그 가족에게 개방

- **北, 올해 다양한 천문학 활동(1/19, 조선중앙TV)**
 - 북한은 올해 유엔이 정한 ‘국제 천문학의 해’를 맞아 천문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표회 등 천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
 - 북한 국가과학원 평양천문대 정석 대장은 중앙TV와 인터뷰에서 평양천문대는 올해 “천문학 연구를 보다 활발히 벌이는 한편 천문학 전문가와 애호가들이 참가하는 과학기술 발표회, 과학강연회, 천문 관측경험 발표회, 천문 관측감상 발표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조직, 진행하게 된다”고 언급
 - 국제천문학연맹에는 세계 140여 개국과 50여 개 국제기구가 가입돼 있으며, 북한은 지난해 11월 연맹에 가입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北, 미사용 연료봉 구매 여부 타진(1/21, 연합)**
 - 미사용연료봉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5~19일간 북한을 방문했던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 등 우리 대표단은 북측 고위급



인사를 만나지 못해 남북관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20일 알려짐.

- 황 단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차석대표인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발표,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을 방문하게 되면 남북관계와 관련한 우리 기존 입장을 전달하려 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북측도 남북관계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
- 황 단장 일행은 방북 기간 중 영변의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비롯한 3개 불능화시설을 시찰하며 미사용 연료봉 구매 가능 여부를 타진했으며 “북한은 우리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는 등 연료봉 관련 협의에는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발표, 외교부 당국자는 ‘북측이 원하는 연료봉의 가격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해 북한이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했음을 시사
 - * 북한이 보유한 미사용 연료봉은 1991~1994년 생산된 1만4800여 개로, 5MW 원자로용 2400여 개, 50MW 원자로용 1만240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로는 101.9t에 해당되며, 국제시세로는 1,000만 달러를 웃도는 것임.

나. 북·미 관계

● 조선신보, 오바마에 북핵도 중요한 과제(1/2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2일, 조선신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전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까다로운 외교적 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북한 핵문제에 관해) 현실적이며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 앞에 경제위기와 이라크 문제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

● 오바마, 직접외교 통한 北비핵화 공식채택(1/21, 미백악관 홈페이지)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21일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북한 비핵화정책을 공식 천명, 미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국정어젠다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강한 외교를 활용하겠다”고 언급
-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동결’, ‘불능화’ 정도가 아니라 ‘제거(eliminate)하겠다’며 북핵문제의 최종 목표로 제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음. 또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터프한 외교’를 명시적으로 밝힘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당근과 채찍 병행전략’을 통해 북



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시사함.

- 이어 오바마 정부는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국가와 전제조건없이 강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며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힘.

● 北, 오바마 美대통령 취임 보도(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하룻만인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비교적 신속히 보도, 통신은 “미국에서 바락 후세인 오바마가 20일에 제44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였다”며 “이날 대통령 취임식이 미국회 청사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하고 “취임식에서 그는 취임 연설을 했다”고 간략히 설명

다. 북·중 관계

● 김정일, 중국대사관에 설 선물(1/26, 중국 국제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설을 맞아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직원들에게 설 인사를 전하고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중국의 국제방송이 26일 보도
- 설 인사와 명절 위문품은 박경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25일 중국 대사관을 찾아 류샤오밍(劉曉明) 중국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명절 위문품의 종류와 수량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

● 왕자루이, 김정일 면담후 귀국(1/24, 연합)

-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3박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24일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귀국
- 왕자루이 부장의 귀국은 이날 함께 고려항공을 타고 온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8)씨를 통해 확인
- 왕자루이 부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설 이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3일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직접 전달, 후 주석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의 방중 초청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보도됨.
- 왕자루이 부장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당정 고위층을 두루 만났음.

● 中 후진타오, 北 김정일에 친서(1/23,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



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3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날 왕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외연락부 대표단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음력설에 즈음하여 보내온” 후 주석의 “축하인사와 친서”를 전달하고 대표단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고 북한 방송들은 보도
-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과 국가 지도부에 설 축하인사를 전하고 ‘조중(북중) 친선의 해’ 정초에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고 왕 부장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한 뒤 이들과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고 방송은 보도
- 면담에는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배석

● **北김영일, 中 왕자루이 담화(1/22, 조선중앙통신)**

- 김영일 내각 총리가 2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담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자리에는 김태중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동석
- 김 총리는 “지난해 중국 당과 인민이 호금도(후진타오) 총서기 동지의 영도 밑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나라의 대외적 권위를 더욱 높였다”면서 “중국 공산당 제17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 관철을 위한 중국 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앞서 왕 부장은 북한의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만나 담화를 나눔.

라. 북·러 관계

● **러, 北 핵보유국 인정 안해(1/21, 연합)**

- 글레브 이바첸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21일 러시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핵을 포기토록 6자회담을 통해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
- 이바첸초프 대사는 21일 국제한민족재단이 ‘2009 한·러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또 러시아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구의 자원개발을 위해” 이 지역의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 국경 인접에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실시를 반대한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의 우방으로서 북한 인권과 기아 문제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 “바깥에서 비판하고 위협하면서 시스템을 바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라며 “내부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외부에서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서로 대화를 유지하며 경제적인 협



력을 추진하고 상호신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언급

마. 기타외교 관계

● 北-쿠바대사관 친선모임(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는 20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한 주재 쿠바대사관과 친선모임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모임에는 호세 마누엘 몬타노 주북 쿠바 대사와 북한 노동당의 김태종 부부장 등이 참석

3. 대남정세

● 민간지원단체, 대북지원 일상대로 진행 중(1/19, 연합뉴스)

- 북한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에 대한 ‘전면 대결태세’를 선언했으나 19일 현재 민간 대북 지원 단체들의 방북 계획 등은 일상적으로 진행, 20일과 22일 각각 금강산과 개성에 연탄 5만장씩을 전달할 예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의 윤유선 실장은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니까 큰일 없고 걱정 안한다”며 “내일 금강산 들어가기 위한 초청장이 오늘(19일) 아침에 왔고, 개성 방문 초청장도 문제없이 올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북측에서 20일까지는 신년 공동시설 학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실무자의 방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내일 금강산 방문과 22일 개성 방문 때는 실무자가 각각 서너명 연탄과 같이 갈 것”이라고 답변, 다만 개성관광이 끊기는 바람에 그동안 개성에 있는 현대아산을 통해 오던 초청장이 금강산에 있는 현대아산을 거쳐 오기 때문에 “좀 빠듯하게 온다”고 윤 실장은 덧붙임.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김숙 “오바마정부서도 북핵은 주요의제”(1/23)

-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핵문제는 중요한 외교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핵문제가 미 정부의 초단기 의제에서는 가자사태 등보다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지만 단기의제 속에는 항상 들어가 있어 우선순위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일정과 관련, “현 시점에서 차기회담이 언제 열릴지 가늠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지금은 차기회담에서 다뤄질 현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김 본부장은 미국측 6자 수석대표 선임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북핵문제에 있어 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현재는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것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왕자루이에게) 요청한 것은 없다”면서 “중국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알고 남북대화를 지지하니 이런 기초하에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정일, 6자회담 진척 희망”(1/2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3일 중국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6자회담을 진척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 김 위원장은 평양에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북한은 “한반도를 비핵화하려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北미사용연료봉, 南연료로 사용가능”(1/21)

- 북한의 미사용연료봉에 대한 우리측 실사 결과, 남측에서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격만 맞으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용연료봉을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15~19일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미사용연료봉 처리문제를 협



의하고 돌아온 실사단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보관해 온 미사용연료봉을 우라늄 형태로 되돌리면 남측에서 충분히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사용연료봉은 제조한 지 15년이나 지났지만 보관기관과 상관없이 양질의 우라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천연상태의 우라늄을 정제한 뒤 핵연료봉 제조공장에서 미사용연료봉을 만들었으며 간단한 공정을 거치면 다시 정제된 우라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한 러대사 “러, 北 핵보유국 인정 안해”(1/20)

- 글레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21일 러시아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핵을 포기토록 6자회담을 통해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바셴초프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국제한민족재단이 ‘2009 한.러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전망’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또 러시아는 “시베리아 및 극동지구의 자원개발을 위해” 이 지역의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 국경 인접에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실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한 곳은 “우리 영토에서 단지 177km 떨어진 지점으로,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2013년까지 시베리아 및 극동지구 자원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러시아 경제에 활용하면 과거 미국의 서부개발과 맞먹을 것”이라며 “이같은 국내경제 개발을 위해 러시아는 인접국을 비롯한 대외적 안전보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관련, 이바셴초프 대사는 “서울과 평양 간 접근 추진에 장애물은 상호신뢰성의 부족이라고 본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정상화는 동북아 지역안보의 두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그는 “남북간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데 공동사업과 장기적 경제프로젝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며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중단 철도를 연결하고 남.북.러간 동북아 단일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이 지역 평화와 안보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도사업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검토하면서 남.북.러 3국 철도당국이 정기적으로 만나왔다”며 작년 북한 라진과 러시아 하산역간 52km구간의 현대화와 라진항 화물터미널 현대화 계약 체결을 “한국도 지지하고 있고, 가스 프로젝트엔 북한도 앞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황준국 “北협조적..김계관은 못만나”(1/20)

- 북측과 미사용연료봉 처리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온 황준국 외교통상부 북핵기획단장은 20일 “관련 협의에 북한은 협조적이었다”고 밝혔



음.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 단장은 이날 4박5일 간의 방북일정을 마친 뒤 귀국,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사용연료봉을 보관하고 있는 핵연료봉제조공장을 비롯한 3개 불능화 시설을 시찰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지난 17일 북측 리용호 영변원자력연구원 담보처장과 미사용 연료봉과 관련한 기술협의를 가졌고 오후 늦게 에너지지원 실무그룹 북측 수석대표인 현학봉 외무성 부국장과 만나 6자회담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하지만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차석대표인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그는 “북측은 가급적 많은 시간을 미사용연료봉 실사에 할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해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못했음을 시사했음.
- 외교부 당국자는 황 단장 일행의 이번 방북을 통해 “미사용연료봉의 보관상태와 관리상태를 면밀히 조사했고 의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면서 “우리측이 구매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 검토도 해야되고 미국 등 나머지 참가국들과도 이번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도 해야한다”고 말해 우리측의 구매 가능성은 열어놨음. 이 당국자는 ‘북측이 원하는 연료봉의 가격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말해 북한이 구체적인 가격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시사했음.
- 북한이 보유한 미사용연료봉은 1991~1994년간 생산된 1만4천800여개로, 5MW 원자로용 2천400여개, 50만MW 원자로용 1만2천400여개 등이라고 그는 소개했음. 이는 우리나라로는 101.9t에 해당되며, 현재 국제시세로 1천100만 달러 안팎으로 알려졌다.

● “오바마, 북핵 단호히 반대할것”(1/19)

- 백악관은 19일 곧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지 않으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돼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발표와, 남한에 대해 전면적인 대결태세에 돌입하겠다는 인민군 총참모부 발표를 ‘어린 아이 생떼’라고 일축했음.
- 퇴임을 앞둔 데이비드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마지막 브리핑에서 지난 17일 북한 외무성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를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이목을 끌기 위해 어린 아이들이 하이체어에 숟가락을 세계 내려칠 것이라고 투정하듯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더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페리노 대변인은 “부시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에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게 될 것”



이라고 밝혔음. 그는 이어 “우리가 새 행정부에 남겨놓은 것은 북한의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야망에 모두 반대하고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프로세스”라면서 북핵 6자회담을 언급한 뒤 “그 외교적 프로세스를 통해서야만 그들은(오바마 팀)은 성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北, 우라늄농축활동 지속” <해들리>(1/19)

- 북한은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다짐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활동을 지속해왔을 수도 있다고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음. 해들리 보좌관은 19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북한에 미확인된 양의 고농축우라늄(HEU)이 존재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우라늄농축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HEU과 관련된 실험을 계속해 왔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실질적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음. 그는 북한이 직접 우라늄을 농축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해들리는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양자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6자회담이 지속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견해를 피력했음.

● 황준국 “北발표 협의에 영향 없었다”(1/19)

-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차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북핵기획단장은 19일 저녁 4박5일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중국 에어차이나(CA)122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최근 발표된 북한의 성명이 협의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분위기가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음.
- 황 단장이 방북 중이던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황 단장은 “미사용연료봉을 포함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고 북한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면서 “방문 결과를 토대로 북측과 며칠 동안 미사용연료봉 처리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음. 그는 ‘방문 결과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끼면서 “상부에 보고 후에 별도로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황 단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외무성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음. 황 단장은 외교부와 통일부당국자,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이끌고 지난 15일 방북, 영변 핵시설을 둘러보면서 북한이 보유한 1만4천여개의 미사용 연료봉의 규격과 보관상



태 등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구매가능성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황준국 북핵단장, 방북마치고 오늘 귀환(1/19)

- 북한과 미사용연료봉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한 황준국 북핵기획단장이 4박5일 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19일 베이징으로 귀환.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황 단장이 오늘 오후 에어차이나편으로 평양을 떠나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이며 서울로는 내일 돌아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회동할 계획은 없으며 도착 시간이 너무 늦어 베이징에서 하루 묵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황 단장은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이끌고 지난 15일 방북,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만4천여개의 미사용연료봉의 규격과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구매 가능성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황 단장이 북한에서 관련 협의를 잘 했다고만 전해왔다”면서 “누구를 만났는지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황 단장은 6자회담 차석대표인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과 회동하고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면담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당국자가 평양에 들어간 것은 처음으로, 미사용연료봉 처리문제 외에 검증문제와 대북 에너지지원을 비롯한 6자회담 현안 및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지 주목됨.
- 북한은 2007년 ‘10.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불능화 조치 중 8개를 완료하고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미사용연료봉 처리만 남아있음. 이 중 폐연료봉은 총 8천개 중 5천500여개 정도를 꺼냈고 현재도 하루에 15개씩 인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료봉 구동장치도 간단한 작업을 거쳐 제거될 수 있어 미사용연료봉 처리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음.

나. 미·북 관계

● SMI “美, 협상틀 속에서 北 압박할듯”(1/25)

- 안보경영연구원(SMI)은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대화와 협상의 틀에 북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연구원은 이날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관련, “외형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함으로써 유연함을 견지하겠지만 실질내용과 각론에서는 철저



함과 꼼꼼함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연구원은 “오바마 정부는 북한체제의 모순과 문제점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는 북핵에만 몰두했지만 오바마 정부는 체제와 인권 문제, 군사안보상의 도전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구원은 또 “북한체제의 변화없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며 “최종상황을 설정하고 해결해야할 도전과 문제를 식별해 단계별로 주고받기식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연구원은 “미국은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여와 참여의 수준과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며 “미국이 요청하기 전 한국이 선제적으로 책임을 공유하려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며 확산방지구상(PSI), 미사일방어(MD) 등에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연구원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금융·통상이라는 점을 고려, 안보뿐 아니라 경제, 통상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가능성에 유의해 평화체제 형식과 절차, 조건 등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간 불균형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이 지지 입장을 천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 北 ‘전투력·충성심 약화’ 美보고서에 발끈(1/24)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90년대 중반 아사사태 이래 지속된 영양실조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북한군이 최악의 징병난을 겪을 것이며 북한군의 충성심도 약화될 수 있다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보고서에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발끈했다.
- 중앙통신은 24일 ‘헛된 꿈은 꾸지도 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NIC 보고서 내용은 “악의에 찬 비방중상”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통신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결핵, 성홍열, 홍역 등이 심각한 의료문제가 되고 있다는 NIC 보고서의 지적을 예시하고 “우리 인민들의 건강상태를 왜곡했다”며 “유치한 거짓말”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등으로 일축했다. 이어 통신은 “고치거나 들어내야 할 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반인민적 보건제도”라며 “자료에 의하면 오늘 미국의 치료비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한다”고 말하고 “병원에 가자면 ‘의료보험’에 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통신은 NIC 보고서는 “우리 공화국(북한)의 권위와 위신을 흐리게 하고 우리 내부에 ‘반감’을 조성해 보려는 그릇된 속셈 외에 다른 아



무 것도 아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불순세력들이 ‘의료 문제’요 뭐요하면서 가소롭게 놀아댈수록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우리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음.

- NIC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는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영양실조로 인한 신체적·지적 장애가 앞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남북 통일 후에도 남한에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며 적극적인 징병자원의 감소로 북한군의 전력이 약화되고,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군의 충성심도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美, 핵확산감시 北-남아시아간 수송로로 전환(1/24)

- 미국의 핵안보국(NNSA)은 핵물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의 초점이 수년전부터 옛 소련 국가에서 북한과 남아시아로 전환했다고 윌리엄 토비 NNSA 부국장이 밝혔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음.
- 지난주까지 부시 행정부에서 NNSA 부국장을 지낸 그는 23일 미국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한 강연에서 핵안보국이 “특히 지난 수년간 북한과 남아시아를 오가는 화물 수송로를 감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음.
- 그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중 하나로 “북한과 이란 등 핵을 개발해온 나라에서 확산한 핵 장치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꼽고 “핵안보국이 핵 무기와 핵 물질의 확산을 막는 데 지금까지 꽤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음. 이어 그는 “미국과 러시아는 핵 무기와 물질의 감축에 협력하면서 양자간 관계가 더 발전했다”며 “북한도 책임있게 행동하면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음.
- 그는 그러나 NNSA 관리와 과학자들이 2007년 11월 1일 이후 24시간 북한의 영변에 머물면서 북한의 핵불능화 작업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자신이 지휘했지만 “아마 현재 이 방(강연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북한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예측하는 데 가장 서툴지 모른다”고 말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속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스 레티넨 의원은 지난 13일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는 국가나 개인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추가로 가하는 법안(H. R. 485)을 제출했음.

● 美 김정일 비핵화 발언 환영(1/24)

- 미 국무부는 2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고위관리에게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관심을 표명한 것과 관련, 좋은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음. 국무부는 또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 등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 작업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찬성 발언을 “좋은 일”이라고 논평한 뒤 미 행정부뿐 아니라 6자회담 참가국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지는 것을 보길 원한다며 북한이 약속한 핵폐기 협정을 준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갖고 방북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6자회담 각 당사국과 평화적으로 함께 지내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이에 대해 우드 부대변인은 중국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은 게 없다면서 이번 일로 김 위원장의 북한 내 위상이나 권력장악 등에 대해 어떤 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음.
- 우드 부대변인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북한 관련 정책이 현재 재검토되고 있는 중”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北, 공산주의 최후단계 진입할 수도”(1/24)

-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는 북한이 스탈린식 통치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 정부 차원에서 일상 생활의 모든 요소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음.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17일 의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여전히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공포가 있고, 공개적인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물론 정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그는 또 “공개적인 반체제 운동이나 인권문제에서 진전은 없지만, 북한에서 좀더 우호적인 인권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변화가 미약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음. 그는 “암시장, 밀수, 일부 법령의 비획일적인 집행 등이 그 같은 변화에 포함된다”면서 “북한에서는 외부사회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이 세계 최악이라는 사실과 북한 정권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를 종합할 때 북한은 스탈린 시대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
- 그는 지난 3년간 미국으로 망명한 탈북자는 67명에 달하지만, 더 많은 탈북자가 미국에 재정착하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민 개개인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수용 심사는 과정이 길고 번거로워 미국에 들어오길 원하는 많은 탈북 난민이 대신 한국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음.



- 레프코위츠 특사는 또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재외공관들도 위험한 상황에 놓인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조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피난처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지침이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 “美, 힘에 바탕둔 직접적 北核외교 펴야”(1/23)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터프하고 직접적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대북(對北)정책으로 공식 채택한 가운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힘을 바탕으로한 외교를 펴야 한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주장했음. 즉,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시 받게 될 혜택과 이를 거부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모두 강조하되, 이런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곧바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위협을 북한이 느끼도록 하는 후속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
- 미 하원 군사위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틀째인 22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테러방지’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부측에 오바마 정부의 WMD 확산 및 테러 방지대책을 논의했음. 이 자리에서 초당적 인사로 구성된 미 의회 ‘WMD 확산 및 테러방지위원회(위원장 보브 그레이험 전 상원의원)’는 증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핵확산 방지체제에 당면하고도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음.
- 그레이험 위원장은 또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획득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련의 핵확산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며 두 나라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각국이 경쟁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그레이험 위원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두 나라가 핵을 포기할 경우 인센티브와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 종합적인 ‘조합’을 만들어 제시하고 두 나라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노력을 영원히 중단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이어 그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대화에 역점을 둔 ‘직접 외교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직접 외교) 정책은 힘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음.
- 이를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받게될 혜택과 이를 거부할 경우 치러야할 막대한 대가를 모두 강조하고, 이들과의 직접 외교가 실패할 경우 군사적 대응이라는 직접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을 두 나라가 느낄 수 있는 후속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그레이험 위원장은 주장했다.
- 또 그는 “WMD 확산과 테러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긴급하고 점증하는 위협이지만, WMD 공격은 막을 수 있는 재앙”이라면서 오바마 정부와 미 의회는 미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조치들을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UNDP 대북한 사업 재개 최종 승인(1/23)

-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사업이 오는 3월중 재개될 것으로 보임. UNDP 집행이사회는 22일(현지시간) 올해 제1차 정례회의에서 자금 전용 의혹 등으로 2007년 이후 2년 가까이 중단됐은 북한 사업의 재개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음.
- 집행이사회는 결정문에서 그간 북한 측과의 협의를 통해 대북 사업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인 북한사업에 대한 독립적 회계감사, 경화지급 방식 변경, 북한 현지 직원 선발 절차 개선, 사업 내용 조정 등 4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해 사업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음.
- 주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행이사회는 최종 승인이 남에 따라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3월초 즈음에는 사무소가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음. 이 관계자는 이어 “UNDP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들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UNDP와 북한 양측은 그간 협의를 통해 북한인 직원과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 과거 달러나 유로화 대신 일종의 외화태환권인 ‘외화와 바꾼 돈표’를 지불하기로 하고, 현지직원 채용시 과거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3명의 후보자 명단을 제출받아 면담과 서류심사를 통해 1명을 선발하는 경쟁채용 방식을 도입키로 했음.
- 또 대북 사업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인도적 지원에 국한시키기로 했음. UNDP는 지난 1981년부터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지원사업을 벌여오다 2007년 1월 미국측이 자금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해 3월부터 사업을 중단했고, 5월에는 북한사무소도 폐쇄했음.

● “北 경수로 요구시 대응 방안 연구중”(1/23)

-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비롯한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 다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한 협상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위트 전 담당관이 밝혔음.
- 위트 전 북한담당관은 23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비핵화 3단계 과정에서 “경수로 문제는 핵심 사안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경수로를 요구할 경우,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그때) KEDO의 경험은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KEDO 사무총장을 역임한 찰스 카트만 전 대사와 KEDO에서 사무총장 정책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관 등과 함께 지난 2년간 컬럼비아대학에서



KEDO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음.

- 위트 전 담당관은 KEDO 경수로 사업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에 시작, 2006년 미완성 상태에서 종료됐지만 “10년 간의 KEDO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주 많은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에 대해 잊고 있다”고 지적했음.
- “KEDO는 북한에서 실시한 최초의 다자 협력 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KEDO의 경험은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면담한 60명가량의 KEDO관련 인사가 구술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책으로 엮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레프코위츠 “美공관들, 탈북자처리 지침없어”(1/22)

-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데 국토안보부 등의 길고 번거로운 심사절차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음.
-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17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개별 난민의 미국 입국에 대한 심사는 국토안보부 관할이지만 심사 과정이 길고 번거로워 미국에 들어오길 원하는 많은 탈북 난민이 대신 한국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음.
- 그는 또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미국 공관들도 위기 상황에서 북한 난민을 받아들이고 조언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처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분명한 지침이 결여”돼 탈북자들이 경유지에 있는 미국 공관에 “기봤자 돌려보내지거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로 넘겨질 것으로 믿고 미국 공관을 찾는 일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음.
- 그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미국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 대화를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北대변 조선신보, 오바마에 “북핵도 봐주오”(1/22)

-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새로 출범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 앞에 경제위기와 이라크 문제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 또한 외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조선신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사실을 전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더 이상 까다로운 외교적 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북한 핵문제에 관해) 현실적이며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신문은 “미국의 낡은 정책은 조선반도에 대결의 질서를 세워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협조를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새로운 책임의 시대”를 강조한 것이 “강권과 전횡의 악습을 버리고 국제무대에서 전향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의미라면”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는 “당연히 달라붙어야 할 주제”이고 “조선반도 핵문제야말로 그를 위한 실마리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 “적대국들과도 함께 핵위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임사 대목과 관련, 조선신보는 북한과 미국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대결해온 적대국”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에서 당장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은 “관계정상화를 통해 단계별로 조선반도를 비핵화한다”는 9.19공동성명이라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이어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1.13)를 상기시키며 “오바마 정권이 조선의 호소에 적극 호응한다면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가시고 세계적 판도에서의 핵확산에 제동을 거는 공동의 노력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어려운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美, 北핵인력 평화목적 활용연구 1단계 마무리”(1/22)

-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미국 국립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평화적 목적의 민간분야로 전직시키기 위해 진행해온 연구가 약 1년만에 1단계를 마무리했다고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이 밝혔다.
- 그는 22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조만간 2단계 연구에 들어가 한국을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와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서 관련 회의를 열어 1단계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에는 과거 미 국무부에서 구소련과 동유럽 등의 핵기술 인력의 거취 문제를 담당했던 앤 해링턴씨도 참여했다. 위트 전 북한담당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국에 기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전했다.
- 그는 “아주 자세하고 훌륭한 작전 계획을 마련했다”며 “예컨대 (북한) 핵인력의 총 숫자와 유형, 핵 인력을 전직시키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특히 핵인력이 핵개발과 관련없는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중점 연구했다”며 조만간 연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북한의 핵인력을 1만~1만5천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을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거나, 북한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등 평화적이고 실질적인 분야로 전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의 전직을 위한 자금문제와 관련, 위트 전 담당관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협의해 분담”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북한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핵과 관련한 선진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



라고 말해 한국이 큰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 그는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핵인력을 전직시킨다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에 대한 교육과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구소련,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기존의 핵인력을 민간 분야로 전직시킨 경험이 풍부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음.

● 오바마, 직접외교 통한 北비핵화 공식채택(1/22)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21일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북한 비핵화정책을 공식 천명했음. 미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국정어젠다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강한 외교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음. 앞서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정권인수 과정에 북핵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선언한 바 있으며, 오바마 정부는 이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해 발표한 것.
-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동결’, ‘불능화’ 정도가 아니라 ‘제거(eliminate)하겠다’며 북핵문제의 최종 목표로 제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음. 또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터프한 외교’를 명시적으로 밝힘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당근과 채찍 병행전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됨.
- 오바마 정부는 또 핵무기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의 밀거래를 종식시키겠다고 하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핵확산방지구상(PSI)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음.
- 오바마 정부는 또 핵확산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 “북한과 이란처럼 NPT를 위반한 국가는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 제재를 자동 부과토록 하겠다”고 선언했음. 이어 오바마 정부는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국가와 전제조건없이 강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며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혔음.
- 또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양자협정이나 정상회담 등을 넘어서 6자회담과 같은 효과적인 협상의 틀을 구축할 것이고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동맹들과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오바마, 북한문제 포괄협상 시도할 수도”(1/21)

- 새로 출범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비핵화를 넘어서는 큰 틀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포괄적인 협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신기욱 아태연구센터소장이 21일



주장했음.

- 신 소장은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주최한 ‘오바마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주제의 전문가워크숍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적극적인 외교를 하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소장은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돌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너무 서둘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음.
- 그는 2001년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서둘러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에 관해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상기시키고, “미국의 정치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미 국무부의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스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교수는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 등 북한의 대남 압박술과 관련, “북한이 남한 정부를 압박하면, 미국 정부는 국내정치적인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서 입장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에 대해 “선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능력과 경험, 성격 등을 감안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된 결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 美전문가 “오바마에게 북핵 중요한 현안”(1/21)

- 마이클 아마코스트 미국 전 국무부 차관(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특별연구원)은 20일(현지 시간) “미국과 동북아 관계에서 북핵 프로그램과 북한 미사일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돼 있다”고 말했다. 아마코스트 전차관은 이날 오후 미 비영리재단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위치한 ‘월드어퍼어센터’에서 ‘동북아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의 발표를 통해 미국과 동북아 지역 간 현안으로 북핵과 무역 협상 문제 등을 꼽았음.
- 그는 “현 동북아 시대의 주요 현안 중 북핵과 무역 협상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며 “미국이 아닌 전세계 여타 국가들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인 게 사실이지만 미국이 동북아 국가와의 관계를 균형감있게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사”라고 지적했음.
-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스칼라피노 미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이날 “한국이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해 왔고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북아 등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통치권자에 대한 지지도가 급속히 하락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음. 스칼라피노 교수는 “한국이 정치·경제적 개혁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대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해결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이 지금까지 군부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민주적인 북한 정권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프레드릭 첸 대만 전외무장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관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의 민주주의가 좀더 진전을 이루고 양안 관계가 호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레드릭 전 장관은 “대만의 경우 최근 들어 금권 정치가 만연하고 정치적 부패가 심각해지고 있어 문제를 낳고 있다”며 “정치적 부패 현상과 더불어 독립이나, 중국과의 통합이나는 문제를 놓고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음.

● 라이스 “학계 복귀해도 북핵문제 관심”(1/20)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현직을 떠나서도 북핵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20일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제 학교로 돌아가면 북핵문제에서 떠나게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지난 18일 가진 고별통화에서 말했다고 유 장관은 밝혔다.
- 라이스 장관은 또 17일 발표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 전면대결 태세 진입’ 성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유 장관은 이에 우리측 대응상황을 설명한 뒤 특별한 동향변화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장관은 아울러 한미관계 발전 등을 위한 유 장관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고 유 장관도 라이스 장관과의 원활한 협조체는 앞으로 한미관계가 발전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두 장관의 통화는 라이스 장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2001년 부시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까지 스탠퍼드대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라이스 장관은 20일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만료되면 스탠퍼드대로 돌아가 국제관계학 전문 연구소인 후버연구소에서 일할 것으로 전해졌음.

● “北 ‘오바마가 단결을 비핵화 선택해도 좋다’”(1/20)

-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새 행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현상유지 정책을 취하든 일괄타결 정책을 취하든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지켜보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0일 주장했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조미(북미) 변혁의 관건은 동시 행동, 오바마 정권의 비핵화 과제’라는 제목으로 지난 13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해설하는 기사에서 검증문제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해 “단결을” 해결 방식에 대한 희망을 시사했음.



- 신문은 검증은 비핵화의 “최종단계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비핵화 과정을 교차시키거나 2단계 완료 이후 문제해결의 단계별 수순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기계획으로 상정하면서” 검증문제만 먼저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라고 ‘해설’했음. 신문은 북한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바탕으로 검증절차에 관한 논의에 응할 수는 있다면서도 “문제는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에 가서 적용되게 될 검증절차를 어느 시점에서 논의하며,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을지 여부”라고 주장했음.
- 신문은 “오바마 정권이 조선의 핵보유를 추인하고 현상유지를 바랄지,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를 단결음에 실현하려고 할지” 예단할 수 없으나,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의 요체는 “미국도 검증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증문제에서 역공세”를 펼 것이라고 신문은 주장하고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미국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듭 설명했다.

다. 중·북 관계

● 왕자루이, 김정일 면담후 귀국(1/24)

-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3박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24일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귀국했음. 왕자루이 부장의 귀국은 이날 함께 고려항공을 타고 온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8)씨를 통해 확인됐음.
- 후 주석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의 방중 초청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보도됐음. 왕자루이 부장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김영일 내각 총리,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당정 고위층을 두루 만났음.

● 김정일 “한반도정세 긴장 원치 않아”(1/2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3일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상태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평양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들고 방중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나 (6자회담) 각 당사국들과 평화적으로 함께 지내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음.
- 통신은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 함께 협조와 조화를 이뤄 6자



회답을 부단히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평양 백화원 국민관에서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왕 부장은 후 주석이 보내온 축하 인사와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김 위원장과 악수를 나눴음. 후 주석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초청했으며 김 위원장도 후 주석의 방중 요청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 후 주석은 또 김 위원장에게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대표해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한다”면서 “올해는 북중 수교 60주년이자 양국 우호의 해인 만큼 이를 기회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 김 위원장도 후 주석의 새해 인사를 받고 “후 주석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으며 “북중 관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중 우호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화답했음.
- 이번 면담 장면은 북한 매체뿐만 아니라 신화통신이 직접 찍은 사진 10장도 함께 공개돼 김 위원장이 국가 통치에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에 문제가 없음이 사실상 확인됐음.

● 中 후진타오, 北 김정일에 친서(1/23)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23일 보도했음. 김 위원장은 이날 왕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외연락부 대표단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음력설에 즈음하여 보내온” 후 주석의 “축하인사와 친서”를 전달하고 대표단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다고 북한 방송들은 전했다.
- 김 위원장은 후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과 국가 지도부에 설 축하인사를 전하고 ‘조중(북중) 친선의 해’ 정초에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고 왕 부장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답화”를 한 뒤 이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후 주석은 2007년 3월 4일 김 위원장이 북한주재 중국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와 그해 7월 양제츠 외교부장을 면담했을 때, 역시 그해 10월 30일 류원산(劉雲山) 공산당 중앙선전부장을 면담했을 때, 지난해 6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을 면담했을 때 김 위원장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었으나, 이번엔 ‘구두’라는 표현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서면 친서로 보임. 북한 방송들은 친서의 내용과 김 위원장과 왕 부장간 대화 내용,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은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음.
- 이날 면담에는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장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배석했음.



● 김정일 中 왕자루이와 접견(1/23)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방북 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접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김정일 위원장이 와병설이 제기된 지난해 9월 이래 외빈을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 통신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왕 부장과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는 언급하지 않았음.
- 통신은 왕 부장이 전날 김영일 내각 총리와 만났다고 보도하면서 왕 부장은 북한 노동당의 초청으로 지난 21일 방북했다고 전했음. 베이징 소식통들은 왕 부장이 김 위원장과 만나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북중간 우호의 해로 지정된 올해 각종 행사와 교류를 통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교도통신은 왕 부장이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후진타오 주석이 전하는 신년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음.

● 中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방북(1/21)

-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중국 대표단을 위해 연회를 마련했으며, 연회에는 중국 대표단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 대사관원들이 초대됐고 북한 측에서는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태중 부부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최 비서는 연설에서 “두 당 최고 영도자들의 관심 속에 조선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의 관계는 좋게 발전해 왔다”면서 “공동의 노력에 의해 ‘조.중(북한-중국) 친선의 해’인 올해에 조.중 친선이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왕 부장은 연설에서 중국과 북한의 국교 수립 60주년인 올해에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中, 南北에 대화 통한 관계개선 촉구(1/20)

- 중국은 심각한 경색 국면을 맞은 남북 관계와 관련,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시종일관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는 한반도 전체 국민의 공동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北, 위화도 자유무역지구 지정 추진”(1/20)

-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인 압록강에 있는 섬인 위화도를 중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



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복수의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중국과의 국경무역 강화를 통해 부족한 식료품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북한이 이런 계획을 마련한 목적.

- 북한의 북중무역 강화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융화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북한 신의주에 속해 있는 위화도는 면적은 약 15.5km². 섬 안에는 교역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중국인은 비자가 없이도 이곳을 방문해 일용품이나 식료품 등을 판매하거나 매입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북한측의 구상. 중국 국경에서 러시아인에 대한 비자를 면제해 무역 확대를 달성한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헤이허(黑河) 자유무역지대가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현재 단둥(丹東)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중조(中朝) 우의교(友誼橋)’가 노후화돼서 다리 인근에 새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 그러나 북한측은 최근 중국에 새 다리를 위화도가 있는 압록강 상류측에 건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는 새 다리를 위화도와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中, 김정남-장성택 구도 선호” <소식통>(1/19)

-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의 북한 후계구도에 대해 장남인 김정남이 전면에 나서고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후견인으로 나서는 구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날 “중국의 희망 시나리오는 김정남과 장성택이 권력을 승계하는 구도로 파악된다”면서 “중국의 여러 인사를 만나보면 대체로 이런 후계 구도에 대해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중국의 선호 이유에 대해 “김정남이 베이징에 아파트를 갖고 있을 정도로 중국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해 중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정남이 후계자로 지명될 경우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호하고 있음을 내비쳤음.
- 일본 언론들은 최근 북한이 김 위원장에게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장남인 김정남을 형식적으로 원수로 하고 장성택이 김씨 일족과 노동당, 인민군 등 3자를 통한 집단지도체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후계자로 셋째 아들인 김정운(1984년생)을 낙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음.

● “北中무역, 2003~07년 76억弗 수준”(1/19)

- 북한과 중국간의 2003~2007년 5년간의 무역규모가 총 76억달러 수준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국 세관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중간 교역 규모는 2003~2007년



5년간 수출입을 합쳐 76억달러 수준이며 중국의 대북 수출이 51억 달러, 북한의 대중 수출이 25억달러로 북한이 5년간 26억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파악됐음.

- 연도별로 보면 양국 무역규모는 2005년에 15억8천100만달러에서 2006년에는 16억9천960만달러로 7.5% 증가했음. 2008년의 무역액은 1~10월에만 21억2천400만달러에 달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1.7% 증가하면서 2007년 전체의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음.
- 특히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과 양국 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간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북한은 최근 중국과의 최대 교역창구인 단둥(丹東)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영사 출장소를 개설해 북중 무역을 행정적으로 지원키로 했음.

라. 일·북 관계

● 日외상 “김현희 일어교사 가족면담 주선”(1/20)

-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은 20일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됐던 김현희(金賢姬)씨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이자 자신의 일본어 교사였던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의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김씨가 그런 생각이라면 가능하면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음. 나카소네 외상은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음.
- 나카소네 외상은 김씨의 면담 의사 표명 보도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한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직접 김씨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음.

마. 기타

● 김정남 “北 후계구도 관심없다”(1/24)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38)은 24일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는 아버지만이 결정할 문제”라며 자신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음. 이날 오전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김정남은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것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께서만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음. 김정남은 이어 “북한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으며,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이런 민감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음.
- 그러면서 후계구도와 관련, “결정되기 전에 가정하고 상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동생인 김정운이 후계자가 될 것이란 보도와 관련해서도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 두꺼운 점퍼에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한 김정남은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담화(말)할 수 없다”면서 “아버지 같은 분의 건강에 대해서는 함구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음. 베이징에 온 목적에 대해 그는 “개인적인 일로 놀러 왔다”면서 “며칠 동안 베이징에 머물다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라고 소개했음.

● 캐나다 정착 탈북자 11명으로 늘어(1/24)

- 작년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정착한 탈북자가 총 7명으로 집계돼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가 11명으로 늘었음.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7~9월 사이에 4명, 10~12월 사이에 3명의 탈북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전하고,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스테판 메일파트 대변인의 말을 인용,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현재 130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메일파트 대변인은 “한국에 정착한 이후 캐나다 난민을 신청한 탈북자가 많아 이를 구분하기 위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지난 3개월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신청을 철회한 사례도 이전보다 1.5배나 늘었다”고 밝혔음.

● “北당국, 북한내 ‘지하교회’ 처음 인정”<VOA>(1/23)

- 북한 당국이 최근 처음으로 북한내 지하교회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1일 보도했음. VOA는 이날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작년 12월 18일 ‘간첩’을 체포했다고 발표하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불순 적대분자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려던 비밀 지하교회 결성 음모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 북한 당국이 공식 담화나 발표를 통해 ‘지하교회’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VOA는 덧붙였다.

● “北-이란, 단기 우려이슈”<美정보국장>(1/23)

- 데니스 블레이어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는 22일 북한과 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충돌 등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단기 외교.안보 이슈로 꼽았음.
- 블레이어 내정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위원장 다이앤 파인스타인)의 인준청문회에 출석, 답변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반미 테러리스트는 물론 (핵)무기확산 세력, 마약밀매자, 사이버 공격 세력 등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블레이어 내정자는 또 “미국은 지금 미국의 생명과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3가지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반미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또 중국과 인도, 기타 개발도상국의 점증하는 국력과 영향력



을 장기적 관점의 도전과제로 지목했으며, 방심할 수 없는 새로운 과제로는 기후온난화, 에너지 공급, 식료품 가격, 전염성 질병을 거론했음.

● “北, 휴대폰 일반인.지방 확대 허용”(1/20)

- 북한이 지난해 말 평양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 주민과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했다. 북한을 왕래하는 중국인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개통 초기 당과 내각의 간부들에게 판매되던 휴대전화가 이제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판매되고 있다”며 일반 주민도 가입비와 기기를 포함해 350달러를 내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북한 당국은 처음엔 간부들에게 우대 가격인 200달러에 휴대전화를 공급했지만 가입자가 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국인은 “일반 주민은 가까운 체신국에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민증을 제출하고 돈을 내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FA는 북한의 ‘함경북도 지방과 연락하고 있는 탈북자’의 말을 인용, 북한 당국이 최근엔 군부대들과 지방에도 휴대전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탈북자는 “평성시와 남포시 등 지방 도시에는 필요한 통신장비들이 지난해 말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중앙의 지시가 있으면 당장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북한 사람들이 말한다고 전했다.
- 그는 휴대전화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북한 당국은 비밀유출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통신 기지국에는 도청 전문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호주서 3월 북한인권 국제회의(1/19)

- 제8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사)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과 호주의 북한인권호주위원회(위원장 마이클 덴비 호주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오는 3월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림.
- 이 회의에선 비탄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특별연설을 한 뒤 북한의 아동권리 실태를 다루는 제1회의의 사회를 맡을 예정이고, 제2회의에서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체계와 고문 상황(허만호 경북대 교수), 북한의 종교자유(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강제실종’ 문제(노르마 강 큐코 영국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동북아담당관)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호주 회의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소재로 한 뮤지컬 ‘요덕 스토리’에 기반한 안드레이 피디 감독의 다큐멘터리 등 북한인권관련 영화가 상영되고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씨의 연주회, 탈북 화가 선무 작품 전시회 등의 행사가 열림.

● 인천교육청 “새터민에 고교 졸업학력 인정”(1/19)

-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새터민에게 고교졸업학력 인증서를



최근 발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고교 졸업 학력을 인정해 달라는 새터민 김모(38.인천시 연수구)씨의 요청에 대해 최근 교육국장과 장학사, 교감, 새터민 관련 업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학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고교 졸업학력을 인정키로 하고 인증서를 발급했음.

- 시교육청은 ‘북한 이탈주민의 학력 인정에 관한 사항’을 다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2항에 따라 2002년 남한에 정착한 김씨가 북한에서 온성고등중학교 6학년 과정을 수료한 것은 남측의 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이고 대학 진학의 꿈을 갖고 있어 학력을 인정할 것으로 전해졌음. 그동안 새터민 초·중·고교학생들이 해당 초·중·고교에 편입, 공부하도록 하는 경우는 많았으나 김씨와 같이 졸업을 인정, 졸업학력인증서를 발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사할린동포 126명 부산시민된다(1/19)

- 일제 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 등으로 강제 징용됐던 사할린 동포 126명이 60여년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땅 부산으로 영구 이주함.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사업에 따라 사할린 동포 1세대와 광복 이후 태어난 2세대 및 장애인 자녀 등 126명이 20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부산으로 영구 귀국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할린 동포들이 부산으로 영구 귀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이들은 부산 연고자를 포함해 부산을 희망 거주지로 선택한 사람들로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국민임대아파트인 휴먼시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예정. 부산 적십자사도 앞으로 3개월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원캠프를 설치하고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상주시켜 교통안내와 관공서 이용, 병원가기, 시장보기, 편의시설 안내 등 사할린 동포들의 정착을 도울 예정. 부산 적십자사는 또 이들 동포 어르신을 맞이하기 위해 침대와 서랍장, TV,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 쌀, 반찬 등 가구와 생필품도 지원할 예정.
-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주선으로 1989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모두 2천316명이 귀국해 인천과 경기도 안산, 화성 등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올해도 부산에 정착하는 126명을 포함한 342명이 부산과 강원도 원주 등에 보금자리를 마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재협상없인 한미FTA 비준 어려워”(1/23)

-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2일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민주당 정계 인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없이 미국이 한미FTA를



비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확실히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한 전 의원은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의 이런 분위기를 고려할 때 미국측 움직임과 상관없이 한국이 FTA 비준동의안을 신속 처리하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 전 의원은 또 미 정계 인사들은 오바마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접근을 하며 변화를 보일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협상과 대화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미 하원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7선인 제임스 맥거번 의원(민주. 매사추세츠주)은 한미 FTA 비준문제와 관련,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비준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될 수 없을 것이며 고쳐진 뒤에야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 클린턴 국무장관 인준안 상원 통과(1/22)

-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임명안이 상원 본회의를 21일 통과했다. 클린턴 국무장관 임명안은 이날 상원 표결에서 찬성 94표 대 반대 2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에 따라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 최초의 퍼스트레이디 출신장관이자 여성으로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콘돌리자 라이스에 이어 세 번째 국무장관 시대를 열게 됐다.
- 하지만, 미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위기에 처해 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전시상황이라는 점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이 오바마 정부 첫 외교수장으로서 저야 할 책임이 적지 않음. 우선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의 ‘힘의 외교’에 의해 손상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건해야 하며 인도-뭄바이 테러사태 이후 다시 제기되고 있는 테러 위협에도 맞서야 함. 또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란과 북한 등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도 주도적으로 벌여 나가야 함. 중동의 화약고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정착도 클린턴 국무장관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임.
-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날 클린턴 국무장관의 신속한 인준이 버락 오바마 신임 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쟁, 이란의 핵위협 등 중대한 외교적인 현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부, G20때 한미정상회담 추진(1/21)

- 정부는 오는 4월 초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 기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새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G20 금융정상회의가 4월 2일 개최되고 하루 전인 1일 저녁에는 정상 만찬이 열릴 예정”이라면서 “가능하다면 이 기간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미국 정부측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상만찬을 포함해 회의 일정이 이틀밖에 되지 않는데다 G20 회의 참가국들이 모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원해 회담 성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면서 “미국측도 아직 G20 참가국들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한·중 관계

● 韓中 청소년 1만명 상호방문 추진(1/19)

- 한국과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매년 2천500명씩 총 1만명의 청소년에게 양국을 상호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한·중 양국이 올해 2천500명의 청소년을 상대국에 초청하는 등 2012년까지 4년간 1만명의 청소년에게 상호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애한애중(愛韓愛中)’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우선 첫해인 2009년에는 한국이 중국 청소년 700명을 공식 초청하고 공산주의청년단 등 중국 당국이 한국 청소년 300명을 공식초청하며 양국이 500명씩을 별도로 초청해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도 진행.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한국에 유학하는 중국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행사도 진행하며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200명에 대해 ‘애한애중 상호 멘토제’도 실시. 양국 정부는 이같은 교류 계획을 2012년까지 꾸준히 지속시키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계획.

다. 한·일 관계

● 日 낙도 활용지침 한일 갈등 새 불씨(1/25)

-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 되는 무인도 등 국경 섬에 대한 보전 및 활용 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본부장 아소 다로 총리)는 올 여름 낙도의 보전, 활용에 관한 첫 종합지침이 될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의 보전, 관리 방안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방침.
- 이는 해양권익을 놓고 인접국과 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영토인 낙도와 그 주변의 EEZ를 지키기위한 것으로, 영토 보전 뿐 아니라 기상관측과 어업, 자원개발 거점 등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같은 지침 대상에는 한국의 독도와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인접국과 새로운 외교적 마찰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큼.

- 요미우리에 의하면 일본은 모두 6천852개 섬으로 구성돼 있으며, 혼슈(本州)와 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시코쿠(四國)을 제외한 6천847개 섬을 낙도로 분류하고 있음. 그중 유인낙도는 낙도진흥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6천425개의 무인도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신문은 지적했음.
- 국제해양법조약에서는 섬의 조건으로 “사람의 거주 또는 경제적 생활의 유지”를 못박고 있고, 중국이 ‘낙도 보호 및 이용법’ 정비를 추진, 국가전략적으로 무인도 등을 보호·활용할 계획이어서 일본 정부로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신문은 밝혔음. 특히 수몰의 위기에 직면해 중국이 지난 2004년 해양조약법상의 섬이 아닌 암초라고 지적한 일본 최남단의 오키노토리시마에 대해서는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산호초를 증식하는 등의 보전대책을 서둘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EEZ에 천연가스와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해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간과 협력해 낙도를 조사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한·일 신시대프로젝트 내달 출범(1/25)

- 민간차원에서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연구하는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이르면 다음달 출범.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5일 “양국 위원장인 하영선 서울대교수와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가 17일 도쿄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2월 말에 창립총회를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음.
-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경제 등 3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에 한·일 각 4명의 학자가 위원으로 참석함.
- 프로젝트는 내년 9월까지 분과별 공동연구 등을 진행한 뒤 활동상황과 제언 등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 보고서에는 ‘한·일 미래비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간 합의 사안이었지만 같은 해 7월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양국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진전되지 못했음. 그러나 이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음.

● 한·일, 30일 ‘아프간 지원’ 실무협약(1/22)

- 한국과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지원하는 공동 협력 사업을 논



의하기 위해 30일 서울에서 실무협의를 개최. 외교부 관계자는 22일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한 한·일 공동협력 사업 분야를 논의 하기 위해 30일 양국 외교부처의 담당 국장이 서울에서 실무협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이는 최근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협력 가능한 분야를 실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실무협에서 양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최종 선정된 공동사업 분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 정부는 현재 수요 측면에서 아프간에 실제로 필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한·일 양국 모두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직업교육과 콩 재배 보급 확산을 비롯한 농업 등의 분야를 양국이 추진 가능한 공동사업 분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서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에도 함께 기여하는 한·일관계 구축에 합의하며 대표적 사례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공동 협력을 거론했음.

라. 한·러 관계

● 러' 한국 여대생 화상테러 용의자 검거(1/23)

- 러시아에 언어 연수 중인 한국 여대생을 상대로 화상 테러를 자행한 용의자들이 검거됐다. 22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지난 19일 10대 2명과 20대 1명 등 러시아인 3명을 이번 테러의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음.
-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5시께 모스크바 푸시킨 언어대학 앞 도로에서 이 대학에 언어연수 중이던 한국 언어 연수생 A(22)씨에게 액체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ライター로 불을 붙여 등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음. 이들은 러시아 내 이민족을 상대로 각종 폭행과 테러 행위를 자행한 스킨헤드 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A씨는 사건 당일 학교 앞을 혼자 걸어가던 중 변을 당했고 이 광경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이 급하게 A씨를 구하긴 했으나 등과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음. A씨는 이 학교에서 6개월 과정의 언어 연수를 마치고 오는 2월 귀국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기 귀국해 현재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 한-러 해운협정 타결(1/22)

- 국토해양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김광재 해운정책관과 리센코 러시아 교통부 국제협력부국장이 한·러 해운협정 문안을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양국 정부가 본 서명을 하게 되면 각국 선박은 상대국 항만에서 내국민 대우를 보장받게 되며 화물 하역과 운송 절차도 간소화됨. 문안은 또 선박증서와 선원신분증명서도 상호 인정하도록 규정해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했음.



- 우리나라는 국교 수교 전인 1988년 상대국 선박의 항만 입항을 허용한 이후 1991년 당시 소련 정부와 해운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8차례 해운회담을 개최해 이번에 가서명했음. 양국 해상 물동량은 2005년 1천400만에서 지난해에는 2천300만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교역액은 77억7천500만 달러에서 173억7천400만 달러로 증가했음.

마. 미·중 관계

● 中 “美정부가 군사교류 장애 제거해야”(1/20)

-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에 반발해 미국과 군사교류를 중단한 중국이 미국 차기 정부가 먼저 양국간 군사교류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 후창밍(胡昌明)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2008 국방백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군사교류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 국방부에 군사교류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건강한 발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기를 맞아 우리는 중·미 양국이 군사교류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3개항의 중·미 공동성명의 원칙을 준수해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중단하고 대만과의 군사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신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만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양안(兩岸)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앞서 마샤오텐(馬曉天)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도 최근 양국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중한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게 “양국간 군사관계가 복원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미국이 먼저 군사교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바 있음. 지난해 10월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65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군사 교류를 중단했으며 양국간 군사교류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음.

바. 미·일 관계

● “주일 美대사에 조지프 나이 교수 내정”(1/25)

-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의 주일 미국대사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내정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일 보도. 나이 교수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함께 미일동맹의 강화를 제안한 ‘아미티지 보고서’를 작성한 지일파로, 그의 내정은 오바마 정권



- 이 미일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나이 교수는 일국의 지도자가 성공하는 데에는 군사력 뿐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적 측면에서 세계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의미의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국제정치학자로, 국무부 부차관과 국방차관보를 역임, 실무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히 조합한 ‘스마트 파워’를 제창, 오바마 정권의 외교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음. 나이 교수는 오는 3월 중순 상원의 승인을 거쳐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 美NSC 일본·아태담당 보좌관에 러셀(1/23)

-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는 대니얼 러셀 전(前) 미국 국무부 일본과장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일본 및 아시아·태평양담당 보좌관을 맡게 됐다고 미국과 일본의 외교소식통들이 22일 밝혔다. 러셀 전 과장은 제프리 베이더 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내정자의 지휘 아래 한국 및 북한 정책, 일본 정책을 담당하게 됨.
- 러셀 전 과장은 오사카(大阪)고베(神戸) 미국 총영사를 지낸 일본 전문가로, 지난해 8월까지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일본과장으로 근무했었음.
- 한편, 미 상원은 이날 수전 라이스 주(駐) 유엔대사 내정자에 대한 인준 투표를 실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상원은 또 레이 라후드 교통장관, 손 도노번 주택도시개발장관, 메리 샤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도 통과시켰음.

● 나카소네 “클린턴, 납치문제 중시 약속”(1/23)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고 나카소네 외상이 밝혔다. 나카소네 외상은 이날 통화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클린턴 장관이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과 일본 국민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 클린턴 장관과 나카소네 외상은 또 미국과 일본간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같은 분쟁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당국자는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와 관련, “미일 동맹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펼치는 정책의 초석(礎石)이 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음.

● 클린턴, 日외상과 통화..“대북문제 협력”(1/23)

- 힐러리 클린턴 신임 미 국무부장관은 23일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



根弘文) 일본 외상과 첫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한 문제 등에서의 협력 유지 입장을 확인했음. 클린턴 장관은 나카소네 외상과의 이날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 및 일본인 납치 문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화, 세계 경제 위기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양국 공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음.

- 이날 통화에서 클린턴 장관은 일본과의 동맹이 대아시아 정책의 초석임을 확인했으며, 두 장관은 주 오키나와(沖繩) 해병대의 광 이전 협정을 원만히 추진하는 등 양국간 안보협력을 추가로 강화해나가기로 했음. 이들은 클린턴 장관이 천명한 ‘스마트외교 강화’ 입장과 관련, 중동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이슈, 핵확산방지과 군축, 아프리카 원조 등 부문에서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음.

사. 미·러 관계

● “오바마, 4월 러시아 방문” <러> 언론 >(1/22)

- 20일 공식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보도. 이 신문은 미 국무부 소식통을 인용, “오바마 대통령이 4월 유럽 순방에 나설 예정이며 첫 일정으로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금융회의’에 참석하면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4월 3~4일 프랑스와 독일에서 각각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과 나토 창설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이 소식통은 또 “오바마 대통령 방문 이전인 3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해 러시아 외무부는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문에 대해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어떤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아. 기타

● 한·뉴질랜드, 에너지 등 협력강화 합의(1/25)

- 한국과 뉴질랜드는 에너지·자원, 정보통신·과학기술, 영화·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5일 밝혔음. 뉴질랜드를 공식방문 중인 유명환 외교장관은 이날 머레이 맥컬리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양국 장관은 또 앞으로 정상·외교장관·의회 인사 등 고위급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아시아태평



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기구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특히 유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뉴질랜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맥컬리 장관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유 장관은 인도네시아(20~22일)와 호주(22~24일)에 이어 뉴질랜드 방문을 끝으로 남아태지역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

● 뉴질랜드 외무 “한국과 FTA 등 현안 논의”(1/23)

-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외무장관들이 주말로 예정된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 일정 마련을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머레이 맥컬리 뉴질랜드 외무장관이 23일 밝혔다. 맥컬리 장관은 유명한 외교장관과 진행할 이번 회담에서 “과학과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양국간 관계 증진은 물론 지역 및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맥컬리 장관은 FTA 협상 일정 확정이 이번 양국 외무장관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까지인 뉴질랜드의 2008회계연도에 한국은 뉴질랜드에 10억뉴질랜드달러(약 7천 350억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고 14억뉴질랜드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음.

● 한·호주, 안보·국방협력 강화키로(1/23)

- 한국과 호주는 23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안보·국방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다. 호주를 공식방문 중인 유명한 외교장관은 이날 스티븐 스미스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양국이 핵심 우방 관계로 더욱 발전하려면 기존의 경제·통상분야뿐만 아니라 안보·국방 분야의 협력확대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양국 장관은 또 G20 의장국단인 한국과 호주가 4월 런던 금융정상 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특히 유 장관은 호주가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관심을 두고 건설적 기여를 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스미스 장관은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와 관련한 한국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유 장관은 또 회담에서 한국의 제1위 광물자원 수입 및 투자 대상국으로서 호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협력해 나갈 것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인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자고 제의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 20~22일 인도네시아에 이어 호주를 방문한 유 장관은 24~26일 뉴



질랜드를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

● **中, 2022년 월드컵축구 개최 추진(1/20)**

- 2008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중국이 이번에는 2022년 월드컵축구 개최를 추진. 중국의 중경만보(重慶晚報)는 국가체육총국이 1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체육공작회의에서 2022년 월드컵 개최 신청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했다고 20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국가체육총국은 내달 2일로 예정된 후보등록 마감일이 남아 있어 현재까지 신청서를 국제축구연맹(FIFA)에 접수시키지는 않았으나 월드컵축구 후보 등록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에 들어갔음.

● **柳외교, 20~26일 남아태지역 3개국 순방(1/19)**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0~26일 인도네시아와 호주, 뉴질랜드 등 남아태지역 3개국을 순방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9일 밝혔다. 순방국들의 외교장관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방문은 '신아시아 협력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유 장관은 20~22일 인도네시아에서 누르 하산 위라유다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무역·투자 증진, 개발협력과 오는 6월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비롯한 한-아세안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이어 22~24일 호주를 방문하는 유 장관은 스티븐 스미스 외교장관과 만나 고위급 인사교류, 안보·경제·통상분야 협력 등 양자 현안과 동북아·남태평양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
- 뉴질랜드 방문기간(24~26일) 유 장관은 머레이 맥컬리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뉴질랜드 신정부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국제무대의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참고 1] <후진타오-김정일 주고받은 메시지> (연합뉴스, 1/23)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23일 전달한 친서에는 새해 인사와 함께 북중 관계의 더욱 긴밀한 발전을 이뤄나가자는 메시지가 주로 담겨 있다. 특히 후 주석이 2006년 1월 이후 3년째 방중하지 않았던 김정일 위원장을 친서를 통해 사실상 공식적으로 초청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23일자 기사를 통해 후 주석 친서의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으며 김 위원장이 친서를 전달한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말한 발언도 함께 전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친서 내용과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후 주석 친서

나는 왕자루이(王家瑞) 동지에게 특별히 부탁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와 축원을 보냅니다. 나는 중국의 당과 정부, 인민을 대표해 조선(북한)의 당과 정부 인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중.조 수교 60주년이자 중.조 우호의 해입니다.

수교 60년 이래 양당(공산당과 노동당)과 양국(중국과 조선)의 뒷세대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 창건하고 배양한 중조간 우호협력 관계가 부단히 발전해 오면서 오랫동안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중국의 당과 정부는 중.조 관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나는 조선과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해 양국 수교 60주년과 중.조 우호의 해란 좋은 기회를 맞아 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중.조간 전통적 우의를 위해 부단히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중.조 우호협력 관계의 더욱 아름답고 훌륭한 내일을 만들어 나갑시다.

나는 김 위원장에게 편리한 시간에 다시 한번 중국을 방문해 주시기를 희망하며 당신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김 위원장이 이끄는 조선노동당의 영도하에 조선 정부와 인민들이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사업에 반드시 새롭고 더 위대한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 김 위원장 발언

후진타오 주석의 따뜻한 새해 축하 인사에 매우 감사합니다.

왕자루이 부장께서 후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새해 인사를 대신 전해 주십시오.

나는 후 주석의 방중 초청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중.조 관계는 과거에도 중요했고 현재도 중요하며 미래에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는 조선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우리는 조.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올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마련합니다.

이는 후대 사람들이 조.중간 전통 우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나는 각종 행사가 성공적으로 거행됨으로써 (나중에) 책에다 ‘조중 우호’라는 찬란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중국의 경제사회가 크게 발전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작년에 중국은 (대지진 등) 유례없는 고난을 극복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중국의 국가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인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나는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 진전과정에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조선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관 당사국들과 평화적으로 함께 지내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과 협력과 조화를 이뤄 6자회담을 부단히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jsa@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1/23/0511000000AKR20090123252200083.HTML>